

7일 Market Index	
코스피 2328.20 (-137.22)	코스닥 651.30 (-36.09)
금리 (연이자율) 2.405 (-0.056)	환율 (원/달러) 1466.10 (+32.00)

소비자 물가 '들썩'
기후·정국·환율 '삼중고'
부담 가중
02



코스피가 전 거래일(2465.42)보다137.22포인트(5.57%) 내린 2328.20에 장을 마친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슈퍼관세 폭탄’ 여진 또 증시 블랙 먼데이

‘슈퍼 관세’ 폭탄의 여진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증시가 ‘블랙 먼데이’를 맞았다. 글로벌 관세 전쟁에 따른 미국의 ‘S(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글로벌 ‘R(recession, 경기침체)’ 공포가 재점화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증시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5% 넘게 급락하자 시장의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달러당 원화가는 1470원 가까이 떨어졌고, 원·엔 재정환율은 장중 100엔당 1000원을 넘어섰다.

코스피 초반 5% 급락에 ‘사이드카’ 5.57% 떨어진 2328.20에 마감
낮케이 -7.83%, 상해종합 -7.34%
원달러 환율 5년만에 최대폭 하락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7.22포인트(-5.57%) 떨어진 2328.20에 마감했다. 코스피200선물지수가 1분 이상 5% 이상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9시 12분께에는 지난해 8월 ‘블랙먼데이’ 이후 8개월 만에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5분간 발동됐다. 지수 하락은 2조2000억원 어치 순매도에 나선 외국인인 주도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 거래일 대비 36.09포인트(-5.25%) 내린 651.30에 마감했다. <관련기사 3·13면>

아시아 주요 증시도 줄줄이 내려앉았다. 이날 도쿄증권거래소에서 낮케이 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44포인트(-7.83%) 빠진 3만1136.58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2023년 10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만 자취안지수도 9.70% 하락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7.34% 내렸다. 호주

ASX200지수는 4.23% 하락했다. 달러당 원화가치도 코로나19 이후 5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7.8원을 기록했다. 전 거래일 증가보다 33.7원 높다. 장중에는 1470원을 웃돌았다.

일본 엔 대비 원화 환율도 장중 약 2년 만에 100엔당 1000원 선(오후 3시 30분 1008.21원)을 넘어섰다. 이는 2022년 3월22일 주간 증가(1011.75원) 이후 약 2년 만의 최고치다.

이날 금융시장이 휘청이고, 증시가 폭락한 건 미국 관세의 칼끝이 전세계 각국을 겨누고 있는 데다 그 여진이 스태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를 낳고 있어서다.

미국의 물가·소비지표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를 동반한 지속적인 물가 상승)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의 2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해 시장 예상치(2.7%)를 넘어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 2%를 상회한 것은 물론, 전월(2.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반면 실질 개인소비지출은 전 달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무역전쟁이 격화일로에 접어들며 경기침체 공포, 이른바 ‘R의 공포’도 더욱 커졌다. JP모건체이스의 브루스 카스만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투자자 노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 침체 확률이 40%에서 60%로 높아졌다”고 봤다.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한 중국의 맞불 관세 여파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 영향도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으로 6일(현지시간)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 1개는 24시간 전보다 4.10% 내린 7만 9548달러에 거래됐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정의선의 ‘인디아 드림’ 통합 R&D센터 개소

현대모비스, 하이데라바드 위치
IT기업 밀집, SW인재 확보 용이
글로벌 수주확대 전략 요충지로

글로벌 수주 전략거점 육성현대모비스가 정의선 회장이 각별히 공들이는 인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그룹은 14억 인구 경제 대국 인도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지 맞춤형 모델 출시와 전동화 추진 등을 통해 외연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정의선 회장이 인도 시장에 각별한 공을 들이는 가운데 현대차, 기아는 물론 현대모비스도 현지화에 집중하고 있다.

7일 현대모비스는 인도의 실리콘벨리로 불리는 텔랑가나주(州) 하이데라바드에 소프트웨어 전문 연구 거점을 통합 개소했다고 밝혔다.

인도 시장에서 기술 현지화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정의선 회장의 약속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모비스는 2007년 인도 연구소를 처음 설립했고, 2020년에 제2 연구소를 만들어 운영해왔다. 이번 인도통합연구소 개소는 이 두 연구소를 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하이데라바드 제1,2 연구거점을 통합한 신규 인도연구소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 인도연구소 임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통합연구소는 글로벌 주요 IT기업이 밀집한 상업 지역에 위치해 우수 소프트웨어 인재 확보가 용이하다. 연면적 약 2만4000㎡, 10층 규모 건물로 연구 공간과 데이터센터, 시험실과 교육실, 협력사 업무공간, 임직원 휴게 시설을 마련했다.

인도 자동차 시장은 최근 급격하게 성장 중이다. 인도자동차제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의 신차 판매량은 520만대 수준으로 중국·미국에 이어 세계 3위다. 2028년에는 약 620만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거 소형차 중심에서 SUV나 전기차 판매가 늘면서 차에 탑재하는

대형 디스플레이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같은 자율주행 2단계 신기능 적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인도연구소의 풍부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바탕으로 이곳을 글로벌 수주 확대를 위한 전략 요충지로 키운다.

현재 이곳에는 약 1000여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근무 중인데, 인재를 지속해서 채용할 계획이다. 원가 경쟁력은 높이고, 성능 및 품질·기술 고도화를 이끌어 궁극적으로는 독자적으로 글로벌 시장 제품 수주까지 맡는 센터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m-커버스토리

상호금융, 역대급 적자... 서민 버팀목 ‘흔들’

작년 새마을금고 순손실 1.7조
신협·수협 합산 2.4조 달해
부동산 불황 PF 위험성 드러나

새마을금고와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사가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면서 서민금융의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연체율 상승으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한 영향이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용 비중이 높은 편이다. <관련기사 4면>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새마을금고 1276곳의 순손실은 1조7382억원 규모다. 연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간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1조6000억원에달했다. 대손충당금이란 금융회사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쌓아놓는 자금이다. 대손충당금이 증가한 것은 수익성과 건전성 모두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은 6.81%다. 1년새 1.74%포인트(p) 상승했다. 총여신

잔액은 연간 4조4000억원 줄어든 183조7000억원 규모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각각 2000억원, 4조2000억원씩 줄었다. 기업대출 대비 리테일(소매금융) 비중을 더 많이 줄인 셈이다.

새마을금고 뿐 아니라 신협과 수협도 순손실을 거뒀다. 지난해 신협의 손실액은 341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으며 수협은 손실액은 2200억원 가량 증가한 2725억원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수협의 합산 손실액은 2조3526억원이다. 상호금융 출범 60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원인은 부동산PF다. 업계에서는 지난 2021~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건물만 올리면 분양에는 어려움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투자만 하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고금리 여파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부동산 PF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대출금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부동산

PF는 상당수를 공동대출로 시행했다. 복수의 금고가 대출금을 출자한 셈이다.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이 기업을 중심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공동출자 상호금융의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PF 정보공개 플랫폼’을 출범했다. 지난달 기준 PF 사업장 385곳이 매각 대상에 올랐으며 이 중 상호금융사의 사업장은 153곳이다. 전체 사업장의 39.7%를 차지한다.

상호금융권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는 공동대출이라고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던 금고도 있다”라며 “지역 단위 협의회가 존재하다 보니 보수적인 금고라도 공동대출에서 빠지기 어려운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민과 소상공인이 돈 빌릴 곳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메트로 한줄뉴스



▲국민의힘 윤리위, 대선일까지 윤리위 열지 않기로
▲여객기참사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15세 미만 희생자도 보상 /사진 뉴시스

▲한동훈 “이재명은 개헌 회피세력...내란종식은 맥락없는 핑계”
▲유승민 “국민의힘, 완전국민경선으로 가야 이재명 이길 수 있어”

▲대구 떠나는 홍준표 “금요일 사퇴한다”...대선 출사표
▲김부겸 “개헌과 내란종식, 양자택일 문제 아냐...이재명, 개헌 로드맵 제시해야”